

■ 이렇게 출제합니다

생활주변 문제와 독서체험 중점 파악

제51회 호남예술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최근 대학 입시에서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논술부문 신설이다. 대학 입시가 아니더라도 논술은 논리적인 사고에 꼭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 본사는 25일부터 제51회 호남예술제 논술부문 예선대회의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논술출제 경향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중·고교 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현행 대학 입학 전형에서 차지하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학생 선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논술의 막강함을 인정하는 일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논술이 하나의 도구로 인식되면서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있으며 상품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처럼 논술이 대학입시의 한 수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호남예술제에서 처음으로 신설되는 논술부문을 공모하는 일 자체가 어찌보면 또 하나의 우를 범하는 것인지는 모르다. 하지만 논술의 힘은 그곳에 있지 않다. 논술은 학문 탐구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관과 비판적 정신으로 견실한 세계관을 쌓아가면서 하나의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건강성을 되찾을 수 있다. 논술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힘'을 가진 것이다.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학생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제로 다루면서 특정 종교 단체의 주장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인간 살상을 전제로 하는 군대를 거부하는 일은 양심을 가진 모든 이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에서는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상황에서 징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 군복무 중이거나 이미 마친 사람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같은 이슈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이분법적 사고로 양분되는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타국의 사례를 찾아보고 '대체복무제도'라는 제 3의 안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논술의 힘은 이렇게 발휘된다.

이번 호남예술제 논술부문에서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자 한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슬기로운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했다. 자신의



올해 호남예술제에 논술 부문이 신설됐다. 지난해 열린 제50회 호남예술제에서 참가자들이 글짓기 작품을 접수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초등생 구체적인 일상 쓰도록 중학생 가치관 관련 논제 제시 고교생 시사 이면 들여다보기

실천적 체험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게 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더 많은 책을 읽게 하고 더 많이 묻도록 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임을 알려주고 싶다.

중학생들은 가치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가치관과 관련한 논제를 제시하였다. 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논제에 대한 답안이 도덕교과서처럼 호를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독서체험을 제시하고자 요구했다. 좋은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단계다.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뉴스로 접하게 되는 시사문제의 이면에 어떠한 심각성이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했다.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논술 잘 쓰는 요령은 물음에 나타난 출제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에 대해서만 답을 하라는 것이다. 사족(蛇足)이란 고사(故事)가 있다. 쓸데없는 답을 쓰느라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묻고자 하는 바를 알았다면 좋은 능력을 인정받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세 번 이상 고쳐쓰라는 말도 빠뜨릴 수 없다. 한 번 만에 모두를 표현할 수는 없다. 참가자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 봉 형 <광양고등학교 교사>

■ 예선 논제 및 일정 ■

◇ 초등학생 부문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부터는 월 2회 주5일 수업제를 확대하여 실시함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은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과 집안 형편을 고려했을 때 토요일 휴무일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써 보시오.

◇ 중학생 부문

"짧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생과 시련을 이겨 낸 후에야 인생의 참맛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은 고생과 시련이 따르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쉽고 편한 일을 찾으려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짧은 시절에 겪는 고생과 시련의 참 의미에 대하여 자신의 체험이나 독서체험을 반영하여 견해를 밝히시오.

◇ 고등학생 부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계통의 혼혈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작성한 '대체 이주에 관한 보고서(2000년)'는 "한국의 경제활동인구(15~64세)를 최대 수준(3천660만 명)으로 유지하려면 2020~2050년 사이 모두 64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정착해 2세를 낳을 경우 장기적으로 혼혈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시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응 자세에 대해 자신의 독서 체험이 반영된 견해를 논술하시오.

■ 유의사항

1.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쓸 것.
3. 국어 정서법을 반드시 지킬 것.

■ 호남예술제 논술부문 예선 대회 일정

- ① 참가 자격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초등학교 1, 2학년 제외)
- ② 방식 : 공모전-본사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 ③ 예선 주제 발표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 (www.kwangju.co.kr)
- ④ 원고 분량 : 1) 초등학생 부문: 띄어쓰기 포함 800(±100)자
2) 중학생 부문: 띄어쓰기 포함 1,200(±100)자
3) 고등학생 부문: 띄어쓰기 포함 1,600(±100)자
- ⑤ 접수 기간 : 1) 본사 방문-4월 25일(화)부터 5월 25일(목)까지
2) 우편 접수-4월 25일(화)부터 5월 25일(목)까지 (5월 25일자 소인까지 유효)
- ⑥ 접수하는 곳 : 우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
- ⑦ 결과 발표 : 2006년 6월 2일(금) 호남예술제 홈페이지

The advertisement is a composite of various promotional elements. At the top, there is a grid of small, colorful advertisements for various services and products, including insurance, real estate, and local businesses. Below this grid is a large, central image of a Samsung Bravia television. The TV screen displays a vibrant, colorful scene of a beach or festival with many people and colorful umbrellas. To the right of the TV, there is a vertical banner for 'BRAVIA' with the slogan '월드컵의 브라비아 슈퍼스타팀' (World Cup's Bravia Superstar Team). At the bottom of the advertisement, there are more details about the Bravia series, including a list of features and a small inset image of a Samsung product.